

온 몸으로 성경읽기 Lectio Divina 1st

-어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4²¹)

1. 성경읽기의 필요성/왜 읽어야 하는가?

요 1¹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 4¹²⁻¹³,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신다.

-제롬(347-420)의 명언,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수도사들의 중요한 수행 중 하나로, 영성(경건)생활의 원천

-개신교가 일어버린 성경읽기의 전통, 방법

2. 왜 lectio divina인가?

2-1. lectio divina란?

-지적, 비판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맛들이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Incarnation)되고 내면화 될 때, *변화가 일어남.

-Spiritual Reading, Holy Reading, Prayerful Reading, Meditative Reading

-영적 독서, 거룩한 독서, 신적 독서, 성독(聖讀)¹⁾

-어휘적 의미 : 하나님의 것을 눈으로 모아들이다

① lectio : 눈으로 모아들이다-인간의 능동적, 의지적인 활동을 함축

② divina : 하나님의, 신적인-초자연적인 활동

-인간적인 활동인 동시에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활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담아냄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

2-2. 역사적 고찰

-유다 전통 : 느 8¹⁻⁸, 신 6⁴⁻⁵, 눅4¹⁶⁻²¹ 등

-쿰란 공동체 : 꾸준히 읽고 묵상하여 계약의 내용과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살도록 요구

-초대교회 : 예전에서 성경의 중요성은 특별히 강조, 초대 기독교 문헌을 보면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책」인 성경과 동등한 의미를 가짐²⁾

-교부들 :

① 오리겐(185-251), 성경은 우리의 영성생활을 돕는 부수적 도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 성경 독서나 묵상은 모든 지혜의 기초이며 신앙 생활 이상의 것이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을 처음 사용.



내적 변화

이 변화는 호수와 같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다. 호수는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변했다. 아주 서서히, 파동을 일으키며 호수의 존재를 바꾸어가듯,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킨다.

1) 성스러운 독서, 성경 독서, 성령에 의한 독서

2) E. Ghiotto, "Lectio Divina in the Monastic Community", p.36

- ② 요한 크리소스톰(347-407),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로 향기나는 식물, 흘러넘치는 샘과 같다.
- ③ 히에로니무스(347-420),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천상적인 음식이다.
- ④ 암브로시우스(339-397),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에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한다.
- ⑤ 제롬(347-420),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 교부들에게 성경은 생명의 책이었으며 하나님과의 친교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
- *수도회들 : 성경에 대한 학문적 방법보다는 마음으로 읽고 맛 들이는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을 선호

2-3. 잃어버린 이유

- 12~13세기 실제적인 삶을 강조하는 탁발 수도회들의 출현
- 13~14세기 : 스콜라 학문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기 보다는 말씀에 대한 질의와 논증을 추구, 교리 중심의 신학공부로 변함
- 16세기 인문주의자 : 비판적 조직적 독서 방법의 시작
-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 시 자국어 성서 금지
- 빠름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

3. 방법

- 적합한 자료를 찾으라(=성경)
-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 : 침묵해보라. 온갖 잡념, 세상의 소리들로 내면이 가득함을 보게 된다.
- 전 존재로 읽으라 : 눈, 입, 귀로 듣고, 마음으로
- 말씀에 집중하라 :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로 나아가게 된다.
- 성령을 의지하라
- 항구하라 :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베어드는 먹물과 같다.
- 여유를 갖으라 : 응답이 없을 수도, 터덜 수도 있다. 깨달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라. 언젠가는 피어난다.(암송)
- 자주 읽고 되뇌이라 : 소가 되새김하여 철저히 자기 살과 피로 만드는 것처럼.
- *렉시오 디비나는 독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는 길!

Seek in READING,

And you will find in MEDITATION...

Knock in PRAYER,

and it will be open to you in CONTEMPLATION...

-Jerom-

〈To be continue...〉



수도사들

세속을 떠나 사막으로 숨어들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사람들이 찾아옴. 그것이 수도원의 시작!



귀고 2세(12세기 카르투스오회) 원장의 영적 사다리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자료는 유감스럽게도 많지 않다. 다행히 귀고 2세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윤곽을 정리해 놓았다.

독서-묵상-기도-관상 4단계

묵상 없는 독서는 메마르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기도가 열정적일 때 관상에 이르는 것이지, 기도 없이 관상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그것은 기억에 가깝다.



명상과 관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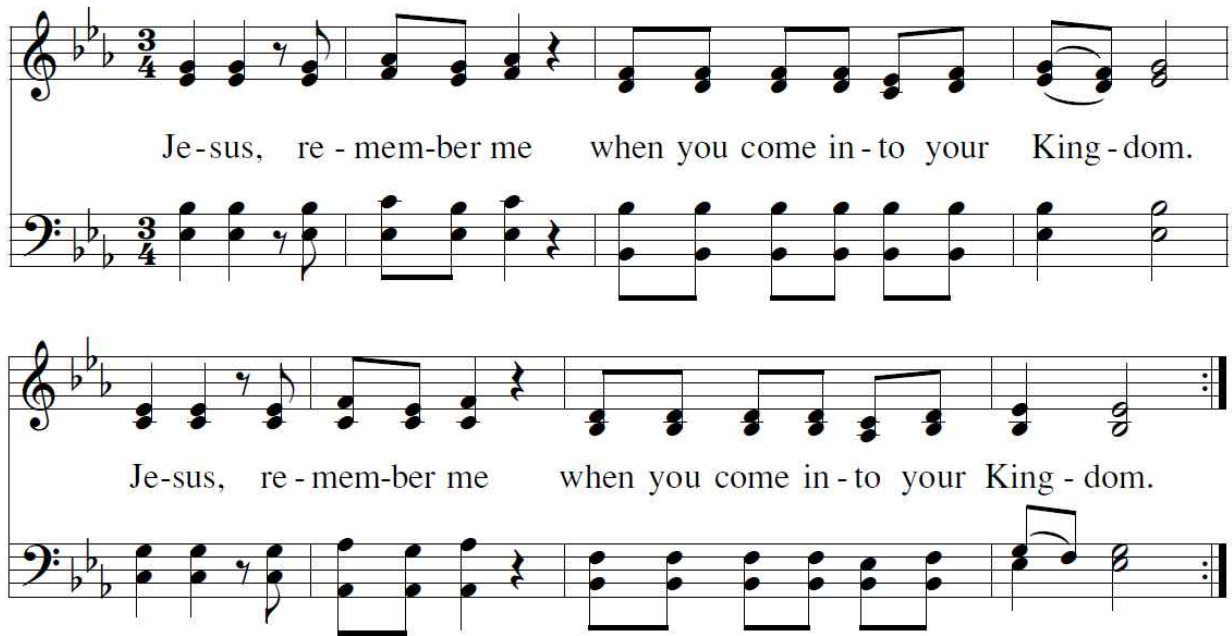
마음을 채우는 것과 마음을 비우는 것.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는가?

문의: 김형중 목사

revival-korea@hanmail.net

Jesus, Remember Me

Ostinato Refrain



Je-sus, re - mem-ber me when you come in - to your King - dom.

Je-sus, re - mem-ber me when you come in - to your King - dom.

Text: Luke 23:42; Taizé Community, 1981
Tune: Jacques Berthier, 1923-1994
© 1981, Les Presses de Taizé, GIA Publications, Inc., agent

[시23편]

-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 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 3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 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 5 주님께서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 6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참고문헌>

- 유해룡, 「기도체험과 영적지도」,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허성준,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1」, 분도출판사, 2014
- 버나드 맥긴 외 3인, 유해룡 외 3인역, 「기독교영성1」, 은성, 2012
- 이그나티우스 로올라, 정제천 옮김, 「영신수련」, 도서출판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10